

붓다 탄생의 예언에 관한 고찰

- 漢譯佛傳을 중심으로 -

I. 서론

II. 탄생과 占師

1. 예언의 배경
2. 예언의 내용

III. 아시타 선인

1. 아시타의 예언과 필연성
2. 아시타의 행동

IV. 예언의 결과

1. 법륜과 초전법륜
2. 전륜성왕의 장례법

V. 결론

이 논문은 2005년도 BK21 고려대학교 한국학 교육·연구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불교학연구』 제12호 (2006. 1)

붓다 탄생의 예언에 관한 고찰

염중섭(정암)¹⁾

I . 서론

모든 佛傳들에는 붓다는 태자시절에 붓다와 轉輪聖王이라는 출세간과 세간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태자는 農耕祭와 四門遊觀이라는 상징적 계기를 통하여 결국 출세간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마침내 正覺을 성취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붓다에 대한 이해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붓다가 전륜성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붓다라는 열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즉, 붓다와 전륜성왕이라는 두 가지의 기로에서 태자는 붓다의 길을 선택하고 전륜성왕에 대해서는 놓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전들이 전하는 바는 이와 같은 분절적 이해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만일 붓다의 成道에 의해서 전륜성왕의 가능성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 이후의 기록에서는 전륜성왕과 붓다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더 이상 엿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자(붓다)에 의해 선택적 가치에 의해 제외된 측면을 성도 이후의 불전들에서 자꾸만 언급한다는 것은 교조에 대한 불경함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전들에서는 붓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측면인 녹야원의 최초설법과 쿠시나가라의 열반을 전륜성왕과 연결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鹿野苑에서 성도 이후 최초로 5비구를 교화하는 것을 불전들과 모든 경전들은 ‘初轉法輪’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輪(cakra)’이 帝釋天에게 있어서의 金剛杵와도 같은 전륜성왕의 상징물이라는 것에 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초전법륜에서의 이와 같은 輪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서 法輪으로 전화되어 불교의 가장 주된 상징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또한 쿠시나가라의 열반에서 붓다는 아난의 사후 장례법을 묻는 질문에 전륜성왕의 장례법으로 하라고 하여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오늘날까지 불탑과 더불어 유전하면서 사리장엄

1) 동국대 강사

구와 다비의 형식으로 남아 있을 정도이다.

룸비니의 탄생과 부다가야의 성도와 더불어서 봉다의 일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시점에, 그것도 성도후의 사건에서 불전들이 전륜성왕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륜성왕의 가치가 태자의 출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그리고 占師와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봉다의 탄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봉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시점²⁾ 중 3부분을 봉다는 전륜성왕의 가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만다.

이외에도 불전들에는 봉다가 발바닥에 千輻日輪의 무늬를 가진 법륜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봉다의 王系를 甘蔗王(Iksvāku)이라는 전륜성왕으로부터 비롯되는 전륜성왕 계통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며, 또 봉다는 전생에 누 차례에 걸쳐 전륜성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불전에 있어서의 어떠한 항상성을 읽어 낼 수가 있으며, 또한 그것은 불전의 기록자들에 의해 의도된 측면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은 본 논문에서 여러 불전들에 근거하여 봉다가 출가함으로 인하여 전륜성왕의 가치가 봉다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출세간의 전륜성왕, 즉 ‘如來法王’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탄생과 占師

불전에는 봉다의 탄생에 있어 두 차례의 예언적 占에 관한 측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占師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시타 선인에 관한 것이다. 점사에 관한 부분은 아시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 비중을 덜 차지하는 것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들 점사의 측면은 봉다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인간으로서의 최초 지적인 동시에 아시타의 예언과 대비되면서 봉다의 인생 역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바가 되기 때문에 나름의 필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1. 예언의 배경

占師에 관한 측면은 현행 사아함에는 간접적으로 밖에 등장하지 않으며,³⁾ 다만 여

2) 釋法顯譯, 『大般涅槃經』卷中 (『大正藏』1, 199中-下), “爾時如來告阿難言 若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於我滅後 能故發心 往我四處 所獲功德不可稱計 所生之處 常在人天 受樂果報 無有窮盡 何等爲四 一者如來爲菩薩時 在迦比羅怖兜國藍毘尼園所生之處 二者於摩竭提國 我初坐於菩提樹下 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處 三者波羅奈國鹿野苑中仙人所住轉法輪處 四者鳩尸那國力士生地熙連河側娑羅林中雙樹之間般涅槃處 是爲四處”

3) 사아함에서 점사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雜阿含經』의 「阿育王經」과 『增壹阿含經』의 「地主品」, 그리고 『長阿含經』의 「大本經」이다. 그러나 「阿育王經」은 優波崛(Upagupta)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地主品」은 선명대왕의 태자에 관한 것이며, 「大本經」은 비바시불에 대한 것으로 세 경우 다 직접적이지 않다.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23 「阿育王經」(『大正藏』2, 166下), “此處父王以菩薩示諸婆羅門”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13 「地主品」(『大正藏』2, 609下), “婆羅門道士 躬抱太子 便彼瞻相”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1 「第一分初大本經第一」(『大正藏』1, 4下), “占曰 有此相者 當趣二處 必然無疑 若在家者 當爲轉輪聖王 王四天下 四兵具足 以正法治 無有偏枉 恩及天下 七寶自至 千子勇健 能伏外敵”

러 불전들에 그 내용이 폭넓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은 점사에 의한 예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게 하는 개연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봉다의 출신성분이 왕자이며, 또한 봉다의 탄생시 정반왕의 나이가 연만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당시의 관습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점사의 예언은 실재 일 가능성에 더 유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나이 들어서 얻은 귀한 왕자에게 특기할만한 사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필연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측면이 봉다보다는 다소 시기가 늦지만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과 왕자인 아사세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四分律』에도 나타나 있는 바이다.⁴⁾ 그러므로 불전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봉다의 탄생에 모종의 ‘占師에 의한 예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불전들 중에서 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경전은 『佛本行集經』과 『佛本行經』이 가장 뚜렷하고, 『方廣大莊嚴經』과 『修行本起經』, 그리고 『佛說普曜經』 등에는 간접적인 언급이 있으며, 경 이외의 글에는 『佛所行讚』과 『大智度論』 등의 언급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여러 불전들에 있어서 점사의 등장은 정반왕이 태자가 궁으로 돌아온 시점에서 바라문 혹은 범지 등의 相法에 능한 사람들에게 태자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운데에서 등장한다. 이를 점사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佛本行集經』과 『佛本行經』, 그리고 『佛所行讚』과 『大智度論』에는 점사들이 한결같이 전륜성왕과 봉다라는 양자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전륜성왕의 가능성 우위를 언급한다. 이러한 전적들에는 또한 정반왕이 태자가 전륜성왕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강렬한 바람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점사들과 符節이 합하는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석가족은 자치국 수준의 나라로써 완전한 독립국은 아니었으며, 봉다의 만년에는 코살라국의 비유리왕에 의해 무력으로 병합된다.⁵⁾ 이러한 세력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점진적인 측면의 반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봉다의 탄생시점에도 정반왕과 석가족에 위기의식이 존재해 있었고, 그로써 강력한 군주에 관한 열망이 존재했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다. 즉, 정반왕의 이러한 바람과 官의 영향 하에 있던 점사들의 바람은 상호 일치되는 것이며, 이는 곧 전륜성왕의 가능성 제시를 도출시키게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은 자유사상가적인 경향이 강한 아시타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전제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예언의 내용

兵杖不用 天下太平 若出家學道 當成正覺 十號具足”

4) 佛陀耶舍·竺佛念 等譯, 『四分律』4 「十三僧殘法之三」(『大正藏』22, 591下), “未生子時婆羅門記言 當是王怨 因此立字名未生怨”

5) 署曇僧伽提婆 譯, 『增壹阿含經』26 「等見品第三十四」(『大正藏』2, 690上-693下).

점사들의 예언 내용을 『佛本行集經』과 『佛本行經』, 그리고 『佛所行讚』과 『大智度論』을 통해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佛本行集經』의 「相師占看品 上」에는 相師들의 말로써, “이 태자의 몸에는 32대장부 상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32대장부 상을 갖춘 이는 이 세간 가운데에서 두 가지 과보가 있는 것에 어긋남이 없고, 다시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 가지냐 하면, 첫째 집에 있어 세상 樂을 받게 되면 곧 전륜성왕으로써 4천 하에 王이 되어 대지를 두호하여 가지며, 7寶가 구족하고 내지 칼과 창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교화하되 자연히 법대로 되어 4해 안에 두루 쟤 것이요, 만약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如來·應供·正遍知를 이루어 이름이 멀리 떨쳐 세계에 가득할 것입니다”⁶⁾라고 하여 정반왕이 매우 기뻐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의 기록만으로는 相師가 말하는 바의 의미가 전륜성왕이 된다는 것인지 봇다가 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명료함은 정반왕이 봇다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아시타에게 “大德尊仙이여, 우리 國師 바라문들은 일찍이 나에게 말하되 이제 이 동자는 반드시 결정코 전륜성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⁷⁾라고 진술하는 부분과 아시타의 봇다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다시금 바라문 국사들에게 물자 이들은 “대왕이여,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소서. 저희들이 授記한 것 같아서 이 태자는 반드시 전륜성왕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말한 것과 끝내 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⁸⁾라는 진술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즉, 여기에서 등장하는 상사들은 官과 관련이 있는 국사이자 바라문이며, 그들은 태자의 32상에 근기하여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반왕은 이에 편승하여 태자의 출가를 저지하고 전륜성왕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게 된다.⁹⁾

두 번째, 『佛本行經』의 「梵志占相品」에는 相을 잘 보는 바라문이 태자를 보고, “전륜성왕이 사방에 군림하였다”¹⁰⁾라고 말하고, 다시금 “큰 성인인 지타갈(技陀竭) 왕과 같이 金輪·白象·玉女·紺馬·明珠·聖臣·主兵의 7寶를 갖추고 하늘과 세간에 노닐며 4가지 군사가 따른다. … 집을 버리고 출가해 도를 추구하면 반드시 봇다가 되어 지혜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간에서 우러르는 밝은 스승이 되리니 이 점괘에는 오직 이러한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아소서”¹¹⁾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전륜성왕과 봇다 중에서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바라문은 “典籍의 占卦를 보면 祥瑞와 부합하니,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전륜왕

6) 閻那幅多 譯, 『佛本行集經』9 「相師占看品第八上」(『大正藏』3, 692下), “此太子身有三十二大丈夫相 凡有一人 具三十二丈夫相者 於世間中 則有二種果報不差 更無餘異 何等爲二 一若在家受世樂者 則得作於轉輪聖王 四天下 護持大地 七寶具足 乃至不用刀杖化人 自然如法 遍於海內 若捨王位 出家學道 得成如來應正遍知 名稱遠聞 充滿世界”

7) 위의 책, (『大正藏』3, 695下) “大德尊仙 此我國師婆羅門等 曾語我言 今此童子 必定得作轉輪聖王”

8) 위의 책, 『佛本行集經』10 「相師占看品下」(『大正藏』3, 700下), “大王 今者莫作是念 如我授記 此之太子必當定作轉輪聖王 如我等語 終無有異”

9) 위의 책, (『大正藏』3, 700下-701上).

10) 釋寶雲 譯, 『佛本行經』1 「梵志占相品第五」(『大正藏』4, 59下), “轉輪聖帝 應臨四方”

11) 위의 책, (『大正藏』4, 60上), “如大聖王 號技陀竭 金輪白象 玉女紺馬 明珠聖臣 主兵七寶 遊天世間 從兵四品…若捨家出 進求道術 必當爲佛 以慧勝世 抑按世間 衆聖明師 按卦所占 唯此二趣”

이 될 것이다”¹²⁾라고 하여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뜻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반왕 또한 “먼저 聖王으로 임하였다가 그런 뒤에야 출가하라”¹³⁾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세 번째, 『佛所行讚』의 「誕生」에는 相을 잘 보는 바라문이 태자를 보고, “이와 같이 특별하고 훌륭한 相은 반드시 등정각을 이룰 것이다. 만일 세상을 친하여 즐겨하면 반드시 전륜왕이 될 것이다”¹⁴⁾라고 언급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경전들과는 달리 등정각이 되리라는 언급을 전륜성왕의 언급에 앞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급의 뒤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역시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반왕은 “나는 이제 훌륭한 아들을 낳았으니, 전륜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¹⁵⁾라고 하여 기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大智度論』의 「初品中迴向釋論」에서는 관상가들이 태자를 보고, “우리의 譏記法에 만일 사람으로서 32상이 있는 이가 집에 있으면 당연히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당연히 붓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의 길 뿐이요, 세 가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¹⁶⁾라고 언급하여 역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반왕은 아시타에게 “相師들은 한 가지 일을 일정하지 않게 말한다”¹⁷⁾고 하여 혼란스러움을 피력한다. 물론 이에 대하여 아시타는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을 단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大智度論』에는 정반왕이 태자가 반드시 전륜성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지는 않는데, 이는 『大智度論』의 성격이 일반의 불전과는 다른 『大品般若經』에 대한 주석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불전에 있어서의 제약은 필연적이었다고 사료해 볼 수가 있다.

이상 열거한 4전적의 점사 예언은 세부적으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점사들은 32상과 같은 태자의 상호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둘째 전륜성왕과 붓다의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주장하는 것은 전륜성왕이라는 것, 셋째 정반왕은 태자가 전륜성왕이 될 것을 희망한다는 것, 끝으로 넷째 이러한 점사의 예언이 전반적으로 정반왕에 의한 官주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기술된 바의 전적들이 말단에 있어서까지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상의 전적들의 기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총 4가지의 주장을 읽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12) 위의 책, “瞻按籍卦 與瑞附合 必得於世 爲轉輪王”

13) 위의 책, (『大正藏』4, 60中), “先臨聖王 然後出家”

14) 馬鳴 造, 曇無讖 譯, 『佛所行讚』1 「生品第一」(『大正藏』4, 2上), “如是殊勝相 必成等正覺 若習樂世間 必作轉輪王”

15) 위의 책, (『大正藏』4, 2中) “我今生勝子 當紹轉輪位”

16) 龍樹 造, 姉摩羅什 譯, 『大智度論』29 「初品中迴向釋論第四十五」(『大正藏』25, 274中), “我識記法 若人有三十二相者 在家當為轉輪聖王 出家當得作佛 唯此二處無有三處”

17) 위의 책, “諸相師說不定一事”

III. 아시타 선인

점사에 이은 아시타의 등장은 점사들이 예언한 바의 전륜성왕과 봇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전륜성왕으로 인식한 것을 반대의 봇다로 一統하는 측면에 근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사에 의한 측면이 정반왕에 의한 다분히 官주도적 인 경향을 가진다면, 아시타는 정반왕과는 별개의 자유사상가이자 수행자의 측면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타에 오게 되면 태자가 봇다가 되는 것은 확고한 가치가 되며, 이로써 정반왕이 태자의 출가를 막으려는 의도 역시 보다 굳건해 진다.

1. 아시타의 예언과 필연성

아시타의 예언은 전적으로 점사들이 예언한 태자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측면과 그 결과로서 전륜성왕을 도출시키는 것을, 반대로 봇다라는 측면의 한 가지로 압축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아시타의 역할은 점사들보다 크고, 또한 점사와 성격적인 면에서 상호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불전들에서는 점사의 측면이 생략되고 아시타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佛說普曜經』에서 점사에 해당하는 석가족들이 阿夷頭(아시타)를 추천하는 역할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나,¹⁸⁾ 『方廣大莊嚴經』에서 정반왕이 아시타와 대화하는 측면 안에서만 점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¹⁹⁾은 바로 이러한 생략의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타의 불전 출현 빈도는 점사보다 많고, 거의 모든 불전에 걸쳐 고르게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타의 예언에 관한 측면은 대표적으로 『佛本行集經』과 『佛本行經』, 그리고 『方廣大莊嚴經』과 『修行本起經』, 및 『佛說普曜經』과 『숫타니파타(sutta-nipāta)』 등의 불전에 상세히 나타나 보이고 있으며, 또한 『佛所行讚』과 『大智度論』에도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전적들에 나타나 있는 아시타의 예언에 관한 측면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佛本行集經』의 「相師占看品 下」에서 아시타는 전륜성왕이 되기를 기대하는 정반왕에게 “몸에 32丈夫相과 … 겹하여 80가지의 미묘한 種好가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러한 모든 상은 전륜성왕의 종자가 아닙니다”²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점사들과는 달리 80종호를 더 들고, 이 같이 32상과 80종호를 아울러 겹비한 경우에는 전륜성왕을 초월하여 봇다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18) 竺法護 譯, 『佛說普曜經』2 「欲生時三十二瑞品第五」(『大正藏』3, 495中), “王會釋種欲試問之 今者太子當作國主 若當出家 欲決此疑 衆釋啓曰 竊聞雪山有仙梵志 名阿夷頭 著舊多識明曉相法”

19) 地婆訥羅 譯, 『方廣大莊嚴經』3 「誕生品第七」(『大正藏』3, 556下), “我子初生之時已召相師占問善否 皆大歡喜以爲奇特”

20) 閻那崛多 譯, 『佛本行集經』10 「相師占看品下」(『大正藏』3, 697中), “身有三十二丈夫相…兼有八十微妙種好 大王如是諸相 非是轉輪聖王之種”

두 번째, 『佛本行經』의 「夷決決疑品」에는 아시타가 “(이 태자는) 온몸에 두루 32가지 묘한 상호가 원만하니 반드시 봇다가 될 것이요, 그 善이 세상에 뛰어나다”²¹⁾라고 단언하고는 혹시 전륜성왕이 될 가능성에 관해서 묻는 정반왕에게 다시금 “내가 상을 관찰한 것으로는 그 용모는 欲樂의 뜻이 없고, 중생들에게 滅度의 뜻을 드러내니, 마땅히 봇다의 용모이다”²²⁾라고 하여 아시타의 추론 동기는 다름 아닌 32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32상만을 가지고 곧 봇다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方廣大莊嚴經』의 「誕生品」에는 정반왕이 석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태자를 전륜성왕을 만들겠다고 공포하고 이를 이어 아시타의 예언이 등장하고 있다. 아시타는 “대왕이여, 베다(韋陀論) 가운데에 기록된 바로는 왕의 태자는 틀림없이 전륜성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2대인상이 극히 분명하기 때문입니다”²³⁾라고 하여 정반왕의 관점을 수정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80종호에 대해 설명하고 “대왕이여, 이것이 바로 거룩한 태자의 80가지 모습인데, 만약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80가지 모습을 이룩하면 집에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드시 출가하여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을 것입니다”²⁴⁾라고 하여 32상을 근거로 봇다가 될 것을 주장하고 이를 80종호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

네 번째, 『修行本起經』의 「降神品」에서는 아시타가 태자의 몸에 드러나 있는 32상과 80종호를 보고는 “모두가 秘記·讖書에서와 같구나. 반드시 봇다가 되리라. 나는 의심함이 없다”²⁵⁾라고 하여 역시 봇다가 될 것에 관한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 번째, 『佛說普曜經』의 「欲生時三十二瑞品」에는 태자의 장래에 관해서 궁금해 하는 정반왕이 석가족들에게 태자가 국왕이 될 것인가, 혹은 출가하게 될 것인가를 묻자, 석가족들이 그러한 대답의 적임자로써 阿夷頭(아시타)를 천거한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아이두는 정반왕에게 “나의 관상하는 법에서는 왕으로 아들을 낳아 32大人相을 지닌 이가 나라에 있으면 장차 전륜성왕이 되어 자연히 7보와 千의 아들이 있고 4천하의 군주가 되어 바른 법으로 다스릴 것이요, 만약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면 자연히 봇다가 되어 중생을 度脫한다고 되어 있습니다”²⁶⁾라고 답변해 준다. 여기에서의 아이두는 곧 아시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에서는 봇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두 가지의 가능성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아이두의 등장 이전에 점사에 관한 측면이 나타나

21) 釋寶雲 譯, 『佛本行經』1 「阿夷決決疑品第六」(『大正藏』4, 61上), “其有充滿足 三十二妙好 必當成爲佛 以善勝普世”

22) 위의 책, (『大正藏』4, 61上) “如我觀察相 恣媚滅欲意 示衆生滅度 當以佛容貌”

23) 地婆訶羅 譯, 『方廣大莊嚴經』3 「誕生品第七」(『大正藏』3, 557上), “大王 如韋陀論中所記 王之太子必定不作轉輪聖王 何以故 三十二大人相極明了故”

24) 위의 책, (『大正藏』3, 557下), “大王 此是聖子八十種好 若人成就如是八十種好 不應在家必當出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25) 竺大力·康孟詳 譯, 『修行本起經』上 「誕生品第七」(『大正藏』2, 464中), “悉如祕讖 必當成佛 於我無疑”

26) 竺法護 譯, 『佛說普曜經』2 「欲生時三十二瑞品第五」(『大正藏』3, 496中), “如我相法 曰王者生子 而有三十二大人相者 處國當爲轉輪聖王 自然七寶千子 主四天下治以正法若捨國出家 爲自然佛度脫衆生”

지 않기 때문에 아이두가 점사의 담당 부분까지 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내용의 축약에 의해서 그 존립 근거가 다소 약해진 상태로 드러난 경우라고 하겠다.

마지막 여섯 번째, 『숫타니파타』의 「날라까경(nālaka-sutta)」에서 아시타는 태자의 인상을 살피고 난후 “이 왕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가장 으뜸가는 청정을 보고 … 法輪 굴릴 것입니다”²⁷⁾라고 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법륜을 굴리게 될 것을 확증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태자의 相好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래의 법륜까지도 언급되어 있어 그 확실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여섯 경전들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앞선 점사의 경우가 두 가지 가능성에 관해서 주로 언급하고 이를 전륜성왕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에 반하여, 아시타는 반드시 봇다가 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그 무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아시타의 행동

태자의 탄생과 관계되어 점사들이 정반왕과 관련된 官주도의 인물로써 전륜성왕이라는 이상향을 제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시타는 위정자와 관계되지 않는 수행자로써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로 봇다라는 이상향을 제출하여 상호 대립되는 측면을 연출한다. 이러한 아시타의 경향성은 그의 일련의 행동양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불전에 나타나 있는 아시타의 행동은 앞서 언급한 예언에 관계된 측면 이외에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비범한 존재라는 것이고, 둘째는 잠들어 있는 것 같은 태자가 실상은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태자를 보고 슬프게 운다는 것이며, 마지막 넷째는 자신의 제자에게 봇다가 출세하면 제자가 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아시타가 비범한 존재라는 측면은 아시타의 등장 배경과 관계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전의 명칭		아시타의 비범한 측면
1	『불분행집경』	①33천에서 안거함 ②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임 ③신족이 있음 ²⁸⁾
2	『불분행경』	①높은 수행을 쌓았음 ②새의 소리를 암 ③신족이 있음 ²⁹⁾
3	『방광대장엄경』	①五通신선으로 설산에 삶 ②천안과 신족이 뛰어남 ³⁰⁾
4	『불설보요경』	雪山에 살며 학식이 높고, 천안과 相法에 능함 ³¹⁾
5	『수행본기경』	香山에 살며 신족이 있음 ³²⁾
6	『숫타니파타』	①33천에서 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임 ②신족이 있음 ³³⁾

27) 『sutta-nipāta』 3 「nālaka-sutta」 “693. sambodhiyaggañ phusissat' āyañ kumāro so dhammacakkhañ paramavisuddhadassī vattessat' āyañ bahujanahitānukampī vitthārik' assa bhavissati brahmacariyam”

이 도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시타는 신통을 갖춘 높은 수행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반왕과는 상호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잠들어 있는 태자가 깨어 있다고 말하는 대목은 자못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아시타가 태자를 처음 상면할 때, 태자가 잠들어 있다고 말하는 정반왕의 진술³⁴⁾에 대한 아시타의 반응으로 아시타가 상을 보기 이전에 이미 태자는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라는 내적인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전의 명칭	잠들어 있는 태자가 깨어 있다고 말하는 측면
1	『불본행집경』	“우리들은 비록 깨어 있어도 마치 잠자는 사람과 같으나 대왕이여, 동자는 오래전부터 잠을 끊어 없애 주야로 항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안락을 얻게 하고자 하며, 크게 이익 되게 하려고 선경에 듭니다” ³⁵⁾
2	『방광대장엄경』	“正士는 자기 성품을 깨달은지라 본래 잠이 없습니다” ³⁶⁾
3	『불설보요경』	“헤아릴 수 없는 겁으로부터 부지런히 덕행을 쌓아 깨치어 온지가 오래고 머니(久遠), 어찌 또 잠을 자겠습니까” ³⁷⁾
4	『수행본기경』	“大雄께서는 늘 스스로 깨닫고 깨닫지 못한 이를 깨우쳤으며, 겁을 지나면서 누워 잠이 없었거늘 어찌 잠을 잔다 하겠습니까” ³⁸⁾

이 도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태자는 이미 수행의 결정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여의었다는 것으로 이는 아시타의 예언 방향과 일치한다. 즉, 붓다야말로 잠든 자 중에 진실로 깨어 있는 자인 것이다.

세 번째, 태자를 상면하고서 근심하여 슬퍼 운다는 것은 아시타가 이미 나이가 많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태자의 성도를 통한 교화에 참석할 수 없음을 슬퍼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한 내용은 『佛本行集經』 · 『佛本行經』 · 『方廣大莊嚴經』 · 『佛說普曜經』 · 『修行本起經』 · 『佛所行讚』 등에 고르게 나오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그 의미적인 측면은 붓다가 될 것이 확실한 태자의 교화를 못 받는다는 것으로 이는 네 번째, 자신의 제자에게 태자가 성도하면 반드시 붓다의 제자가 되라고 지시하는 측면과 연결된

28) 閻那崛多譯, 『佛本行集經』 9 「相師占看品第八上」(『大正藏』 3, 693中-下).

29) 釋寶雲譯, 『佛本行經』 1 「阿夷決疑品第六」(『大正藏』 4, 60中-下).

30) 地婆訶羅譯, 『方廣大莊嚴經』 3 「誕生品第七」(『大正藏』 3, 556中).

31) 竺法護譯, 『佛說普曜經』 2 「欲生時三十二瑞品第五」(『大正藏』 3, 495中).

32) 竺大力·康孟詳譯, 『修行本起經』 上 「誕生品第七」(『大正藏』 2, 464上-中).

33) 『sutta-nipāta』 3 「nālaka-sutta」, 679-685

34) 『修行本起經』 에서는 시녀의 언급으로 나옴.

35) 閻那崛多譯, 『佛本行集經』 9 「相師占看品第八上」(『大正藏』 3, 694中), “我等雖寤 猶如睡人 大王童子久來斷除 無復眠睡 畫夜恒爲諸衆生等 得安樂故 大利益故 而入禪定”

36) 地婆訶羅譯, 『方廣大莊嚴經』 3 「誕生品第七」(『大正藏』 3, 556下), “正士自性覺悟本無眠睡”

37) 竺法護譯, 『佛說普曜經』 2 「欲生時三十二瑞品第五」(『大正藏』 3, 495下), “從無央數劫 精進積德行 覺來以久遠 安得復睡眠”

38) 竺大力·康孟詳譯, 『修行本起經』 上 「菩薩降身品第二」(『大正藏』 2, 464中), “大雄常自覺 覺諸不覺者 歷劫無睡臥 豈當眠寐乎”

다. 또한 아시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佛本行集經』에서 아시타의 죽음이 직접 언급되어 있으며,³⁹⁾ 『修行本起經』에서는 태자의 예언을 시행한 7일 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⁴⁰⁾ 『佛所行讚』에는 아시타는 스스로 죽어 三難天에 나게 된다고 자술하고 있어⁴¹⁾ 그 최후를 밝혀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아시타의 예언에 무게를 실어 주는 부분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마지막 네 번째, 아시타가 제자에게 태자가 성도하여 봉다가 되면 제자가 되라고 지시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경전의 명칭		아시타가 제자에게 태자가 봉다가 되면 제자가 될 것을 지시하는 측면
1	『불본행집경』	시자인 나라다(那羅陀)에게 봉다의 출세를 알려주고 후에 출가할 것을 지시함 ⁴²⁾
2	『불본행경』	제자에게 태자에 의탁하라고 지시함 ⁴³⁾
3	『방광대장엄경』	外族인 나라(那羅)에게 태자가 봉다가 되면 출가하라고 지시함 ⁴⁴⁾
4	『숫타니파타』	조카인 날라까에게 ‘세존’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서 출가하라고 지시함 ⁴⁵⁾

이 도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시타에게 있어 태자의 봉다 성취는 자못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운을 한스러워 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태자가 성도하여 봉다가 되면 출가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총 4가지 아시타의 행동은, 첫째 아시타의 비범함을 전제로 해서 둘째에서 넷째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태자의 봉다 성취를 확신하는 것으로 구조되어 있다. 즉 아시타는 태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봉다라는 측면을 너무나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IV. 예언의 결과

점사가 제시한 태자의 전륜성왕과 봉다의 두 가지 가능성 제시와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시타에 의해서 오류가 지적되고, 그로써 봉다라는 한 가지로 결론지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함경에는 봉다의 최초설법을 初轉法輪이라고 하여 ‘輪’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또한 봉다의 열반에는 전륜성왕의 장례법이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初轉法輪의 輪과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태자에 대한 예언이 아시타의 주

39) 閻那崛多譯, 『佛本行集經』10 「相師占看品下」(『大正藏』3, 700中), “時阿私陀 如是方便 住世無量 而取壽終”

40) 竹大力·康孟詳譯, 『修行本起經』上 「誕生品第七」(『大正藏』2, 464中), “傷我自無福 七日當命終”

41) 馬鳴造, 暈無識譯, 『佛所行讚』1 「生品第一」(『大正藏』4, 3中), “身壞命終後 必生三難天”

42) 閻那崛多譯, 『佛本行集經』10 「相師占看品下」(『大正藏』3, 700中), “汝那羅陀佛興於世 畫夜六時 如是三唱 汝當出家 乃至後時 得大安樂”

43) 釋寶雲譯, 『佛本行經』1 「阿夷決疑品第六」(『大正藏』4, 61下), “卽呼弟子來 汝莫如吾誤 以徒託太子”

44) 地婆訥羅譯, 『方廣大莊嚴經』3 「誕生品第七」(『大正藏』3, 556中), “阿斯陀與外族那羅童子”

위의 책, (『大正藏』3, 557下), “是時仙人語童子言 不久有佛出興於世 汝當往詣求請出家於長夜中得大利益”

45) 『sutta-nipāta』3 「nālaka-sutta」, 695-696

장과 같이 비단 봇다만으로 완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태자는 봇다라는 깨달음의 내면적 입장을 성취함과 아울러 교단과 교화의 측면에서는 전륜성왕의 위력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점사의 예언과 아시타의 예언은 모두 다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그들의 입각점과 관점의 차이가 서로 다른 예언의 결과를 낳았지만 결국 양자는 같은 결과를 지시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하겠다. 태자의 봇다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아시타의 예언도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佛本行集經』이나 『方廣大莊嚴經』, 또는 『술타니파타』의 아시타의 언급 중에는 태자가 봇다가 되어 法輪을 굴리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⁴⁶⁾ 즉, 예언에서의 전륜성왕은 정반왕의 바람을 초월하는 깨달음에 입각한 바의 ‘正覺의 전륜성왕’에 다름 아닌 것이다.

1. 法輪과 初轉法輪

불교의 초기에서부터 봇다의 가르침은 ‘轉法輪’으로 이해되어 왔다. 『增壹阿含經』의 「高幢品」⁴⁷⁾과 「邪聚品」,⁴⁸⁾ 그리고 「請法品」⁴⁹⁾에는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여 하는 일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轉法輪이라고 봇다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측면 이외에도 현행 사아함에는 ‘法輪’에 관한 기록이 총 77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각 아함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함경 명	‘法輪’이 등장하는 경명과 횟수	총계
『잡아함경』	「십력경(348)」 1·「전법륜경(379)」 4·「아육왕경(604)」 4· 「법멸진상경(640)」 3·「십력경(684)」 10·「사자후경(686)」 1·「여래력경(701)」 1·「회하경(1177)」 1·「범천경(1189)」 2·「회수경(1212)」 1	10경 28회
『중아함경』	「칠가경(9)」 1·「청청경(121)」 2·「라마경(204)」 1	3경 4회
『장아함경』	「대본경(第一)」 20·「유행경(第二初)」 2·「유행경(第二中)」 1·「유행경(第二後)」 3·「소연경」 1	3경 27회
『중일아함경』	「호심품3」 1·「안반품10」 1·「고당품5」 6·「등취사제품6」 2·「고락품3」 1·「선취품5」 4·「사취품2」 1·「청법품5」 1· 「등법품7」 1	9품 18회

또한 봇다의 32상과 관련되는 측면에서 『雜阿含經』의 「人間經」⁵⁰⁾과 『中阿含

46) 閻那幅多譯, 『佛本行集經』 10 「相師占看品下」(『大正藏』 3, 700中), “轉於清淨無上法輪 波羅奈國 轉於法輪”

地婆訶羅譯, 『方廣大莊嚴經』 3 「誕生品第七」(『大正藏』 3, 557上), “若人值佛坐菩提座降伏魔怨轉于法輪 當知是人必獲勝果”

『sutta-nipāta』 3 「nālaka-sutta」 “693. sambodhiyaggam phusissat' āyam kumāro so dhammacakkam paramavisuddhadassī vattessat' āyam bahujanahitānukampī vitthārik' assa bhavissati brahmacariyam”

47) 瞩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 15 「高幢品第二十四之二」(『大正藏』 2, 622下), “如來在世間 應行五事 云何爲五 一者當轉法輪 二者當與父說法 三者當與母說法 四者當導凡夫人立菩薩行 五者當授菩薩別”

48) 위의 책, 『增壹阿含經』 27 「邪聚品第三十五」(『大正藏』 2, 699上), “如來出現世時必當爲五事 云何爲五 一者當轉法輪 二者當度父母 三者無信之人立於信地 四者未發菩薩意使發菩薩心 五者當授將來佛決”

49) 위의 책, 『增壹阿含經』 28 「聽法品第三十六」(『大正藏』 2, 703中), “夫如來出世必當爲五事 云何爲五 當轉法輪 當度父母 無信之人立於信地 未發菩薩心令發菩薩意 於其中間當受佛決”

經』의 「梵摩經」⁵¹⁾에는 봉다의 발바닥에 있는 千輻日輪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불전과 불상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손바닥의 문양으로까지 발전된다. 이는 봉다가 전륜성왕과 같이 ‘輪’을 保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봉다는 法輪의 주체인 동시에 또한 輪의 소유자라는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봉다는 봉다인 동시에 출세간의 전륜성왕에 다름 아닌 것이다.

『增壹阿含經』의 「四意斷品」⁵²⁾에는 봉다가 자신이 전륜성왕의 종족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등장하며,⁵³⁾ 「安般品」⁵⁴⁾과 「高幢品」⁵⁵⁾ 및 「力品」⁵⁶⁾에는 봉다가 과거세에 전륜성왕이었다는 진술이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高幢品」⁵⁷⁾에는 석가족의 귀족들이 봉다에게 왕이 되어 전륜성왕이 되고, 이로써 전륜성왕의 대를 끊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나오며, 「善聚品」⁵⁸⁾에는 봉다가 전륜성왕의 가계 출신이라고 나온다. 이와 같은 내용적 측면들은 『增壹阿含經』에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이 외에도 『中阿含經』의 「四州經」⁵⁹⁾이나 「大善見王經」⁶⁰⁾, 내지 『長阿含經』의 「種德經」⁶¹⁾과 「兜羅檀頭經」⁶²⁾ 등에 폭넓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전들은 봉다에게 전륜성왕의 속성이 내재하며, 또한 봉다는 이를 초월하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봉다는 전륜성왕의 位에 엄마이지 않는 전륜성왕인, 法輪을 굴려 외도를 항복받는 正覺의 전륜성왕인 것이다.⁶³⁾ 이와 같은 내용적 측면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鹿野苑의 ‘初轉

50)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4 「人間經」(『大正藏』2, 28上), “尋佛後來 見佛腳跡千輻輪相”

51) 罪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41 「梵志品梵摩經第十(第四分別誦)」(『大正藏』1, 686上), “沙門罪曇足下生輪 輪有千輻 一切具足”

52) 罪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18 「四意斷品第二十六之一」(『大正藏』2, 637中), “父名真淨 母名摩耶 出轉輪聖王種”

53) 閻那崛多譯, 『佛本行集經』5 「賢劫王種品下」(『大正藏』3, 674中).

54) 위의 책, 『增壹阿含經』8 「安般品之二」(『大正藏』2, 584中), “爾時 頂生王者豈異人乎 莫作是觀 所以然者 時頂生王者即我身是”

55) 위의 책, 『增壹阿含經』14 「高幢品第二十四之一」(『大正藏』2, 584中), “比丘當知 我昔曾爲大王 領四天下 以法治化 統領人民 七寶具足 所謂七寶者 輪寶·象寶·馬寶·珠寶·玉女寶·居士寶·典兵寶 比丘當知 我於爾時 作此轉輪聖王”

56) 위의 책, 『增壹阿含經』32 「力品第三十八之二」(『大正藏』2, 727中), “阿難 莫作是觀 爾時善化王者 即我身是 時 以兒故 以一蓋覆土上 緣此德本 流轉天人之間 數百千變爲轉輪聖王 或爲帝釋梵天”

57) 위의 책, 『增壹阿含經』14 「高幢品第二十四之一」(『大正藏』2, 617上), “今日當作王治領此國界 我等種姓 便爲不朽 無令轉輪聖王位於汝斷滅 若當世尊不出家者 當於天下作轉輪聖王 統四天下 千子具足 我等種姓名稱遠布 轉輪聖王出於釋姓 以是故 世尊 當作王治 無令王種斷絕”

58) 위의 책, 『增壹阿含經』24 「善聚品第三十二」(『大正藏』2, 680中), “迦毘羅衛大國 轉輪聖王種出於釋姓 彼王有子 名曰悉達”

59) 罪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11 「中阿含王相應品四洲經第三(初一日誦)」(『大正藏』1, 495下), “阿難 昔頂生王 汝謂異人耶 莫作斯念 當知即是我也”

60) 위의 책, 『中阿含經』14 「中阿含王相應品大善見王經第四(第二小土城誦)」(『大正藏』1, 518中), “阿難 在昔異時大善見王者 汝謂異人耶 莫作斯念 當知即是我也”

61)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15 「第三分種德經第三」(『大正藏』1, 95中), “又沙門罪曇捨轉輪王位 出家爲道”

62) 위의 책, 『長阿含經』15 「佛說長阿含第三分兜羅檀頭經第四」(『大正藏』1, 98上), “又沙門罪曇捨轉輪王位 出家修道”

63) 『增壹阿含經』의 「安般品」에는 世典婆羅門이 法輪을 굴려 모든 외도들을 항복받았다는 周利槃特의 친단이 있어 法輪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짐작케 해준다.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8 「安般品之二」(『大正藏』2, 586中), “今轉尊法輪 降伏諸外道 智慧如大海 此來降梵志”

法輪’이라고 하겠다.

鹿野苑의 初轉法輪은 『雜阿含經』의 「轉法輪經」⁶⁴⁾을 필두로 「阿育王經」,⁶⁵⁾ 그리고 『增壹阿含經』의 「高幢品」,⁶⁶⁾ 및 『長阿含經』의 「大本經」⁶⁷⁾과 「遊行經」⁶⁸⁾ 등에 등장하는 바이며, 여러 불전들에도 공히 등장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初轉法輪은 ‘法輪을 굴린다’는 의미보다는 ‘法輪이 顯現하여 허공중에서 자전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雜阿含經』의 「轉輪王經1·2」⁶⁹⁾나 『中阿含經』의 「大天奈林經」⁷⁰⁾과 「轉輪聖王品」⁷²⁾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륜성왕의 輪寶 성취과정과 작용양태를 통해 능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경전들은 공히 전륜성왕의 輪寶가 태생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德의 성취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修德하여 輪寶가 동쪽 허공에서 출현하면 凡王은 곧 전륜성왕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허공중에 자전하는 輪寶를 앞세워 전륜성왕은 德에 의지하여 4천하를 통섭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륜성왕의 輪寶적인 측면을 봇다에 대입하고 輪寶를 法輪으로 대치하면, 初轉法輪이란 곧 봇다가 바라나시의 녹야원이라는 당시의 종교적 구심점 중의 한 곳에서 외도들의 多種 邪見⁷³⁾을 3천 12행이라는 사성제를 주로 하는 진리의 法輪으로서 統攝하는 것이 된다.⁷⁴⁾

初轉法輪은 수행자로서의 봇다가 정각을 성취하고 난 이후 교육자로써 거듭나는 아주 중요로운 시기이다. 그런데 이를 法輪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은 ‘봇다인 동시에 출세간의 전륜성왕’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은 봇다의 남은 일생에 계속유전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봇다의 가르침은 항상 法輪으로 상징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륜의 상징성은 오늘날에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그 최후인 열반에 즈음하여 봇다는 사후의 장례법을 묻는 아난에게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각 성취 후의 삶이 곧 正覺의 전륜성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기간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이므로 봇다는 봇다인 동시에 출세간의 전륜성왕이었음에 다름 아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64)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15 「轉法輪經」(『大正藏』2, 103下-104上).

65) 위의 책, 『雜阿含經』23 「阿育王經」(『大正藏』2, 167中).

66) 罦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14 「高幢品第二十四之一」(『大正藏』2, 618下-619中).

67) 「大本經」에서 등장하는 초진법륜은 비바시불의 초진법륜으로 봇다의 진술에 의해 설명된다.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1 「第一分初大本經第一」(『大正藏』1, 9上).

68) 위의 책, 『長阿含經』2 「第一分遊行經第二初」(『大正藏』1, 16中).

69)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27 「轉輪王經」(『大正藏』2, 194上-195上).

70) 罦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14 「中阿含王相應品大天奈林經第三(第二小土城誦)」(『大正藏』1, 511下-515中).

71) 위의 책, 『中阿含經』15 「中阿含王相應品大天奈林經第三(第二小土城誦)」(『大正藏』1, 520中-525上).

72)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19 「第一分初大本經第一」(『大正藏』1, 119中-129上).

73) 罦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7 「有無品第十五」(『大正藏』2, 577中), “此六十二見 名曰無見 亦非真見”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14 「第三分梵動經第二」(『大正藏』1, 89下), “盡入六十二見中”

74) 罦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7 「中阿含舍梨子相應品象跡喻經第十(初一日誦)」(『大正藏』1, 464中-467上).

2. 전륜성왕의 장례법

붓다의 열반에 즈음하여 아난이 장례법에 대하여 묻자 붓다는 전륜성왕의 장례법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은 『長阿含經』의 「遊行經」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으며,⁷⁵⁾ 이외에 『般泥洹經』이나 『佛般泥洹經』, 그리고 『大般涅槃經』⁷⁶⁾ 등에 나타나 보인다. 이 중에서 「遊行經」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난은 다시, “佛滅度 後 장례의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이렇게 세 번 여쭈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장례의 법을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전륜성왕과 같게 하라.”

아난이 다시금 여쭈었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붓다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먼저 香湯으로 그 몸을 씻고 새 무명천으로 몸을 두루 감되 5백 겹으로 차례대로 감고, 몸을 금관에 넣은 뒤에는 麻油를 부어라. 다음에는 금관을 들어 제2의 큰 鐵櫛 중에 넣고 梅檀香櫛으로 곁에 겹치고 온갖 이름 있는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그리고 그것을 茶毘하라. (다비를) 마친 뒤에는 舍利를 거두어 4거리에 塔廟를 세워 거기에 넣고 (탑) 표면에는 비단(깃발)을 걸어 전국의 행인들로 하여금 모두 ‘法王’의 탑을 보고 바른 교화를 사모해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난아, 네가 나를 장사지내려 하거든 먼저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새 무명천으로 몸을 두루 감되 5백 겹으로 차례대로 감고 몸을 금관에 넣은 뒤에 麻油를 부어라. 다음에는 금관을 들어 제2의 큰 鐵櫛 중에 넣고 梅檀香櫛으로 곁에 겹치고 온갖 이름 있는 향을 쌓아 그 위를 두텁게 덮고 그리고 그것을 다비하라. (다비를) 마친 뒤에는 사리를 거두어 4거리에 塔廟를 세워 거기에 넣고 (탑) 표면에는 비단(깃발)을 걸어 전국의 행인들로 하여금 모두 佛塔을 보고 ‘如來法王’의 진리교화를 사모하여 살아서는 행복과 이익을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라.”⁷⁷⁾

붓다가 전륜왕의 장례법을 설하신 것은 붓다의 존귀함이 세속의 전륜성왕과 같은 최상위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전륜성왕 외에는 비견할 바가 마땅히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般泥洹經』에서 아난은 “전륜성왕의 장례법으로 하되 그보다도 더 성대하게 할 것”⁷⁸⁾이라고 말하고 있고 『佛般泥洹經』에서는 아난의 물음에 대하여 붓다가 “장례법은 飛行皇帝(전륜성왕)의 장례법과 같다. (그러나) 붓다

75) 『長阿含經』의 「遊行經」에는 두 번에 걸쳐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붓다가 아난을 상대로 교시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아난이 붓다에게 들은 것을 다시금 諸末羅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3 「遊行經第二中」(『大正藏』1, 20上-中).

위의 책, 『長阿含經』4 「遊行經第二後」(『大正藏』1, 28上-中).

76) 釋法顯譯, 『大般涅槃經』卷中(『大正藏』1, 199下), “阿難 供養我身 依轉輪聖王”

77)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3 「遊行經第二中」(『大正藏』1, 20上-中), “阿難復重三啓 佛滅度後 葬法云何 佛言 欲知葬法者 當如轉輪聖王 阿難又白 轉輪聖王葬法云何 佛告阿難 聖王葬法 先以香湯洗浴其體 以新劫貝周遍纏身 以五百張疊次如纏之 內身金棺灌以麻油畢 舉金棺置於第二大鐵櫛中 梅檀香櫛次重於外 積衆名香 厚衣其上而闔維之 誓收舍利 於四衢道起立塔廟 表刹懸繪 使國行人皆見法王塔 思慕正化 多所饒益 阿難 汝欲葬我先以香湯洗浴 用新劫貝周遍纏身 以五百張疊次如纏之 內身金棺灌以麻油畢 舉金棺置於第二大鐵櫛中 旃檀香櫛次重於外 積衆名香 厚衣其上而闔維之 誓收舍利 於四衢道起立塔廟 表刹懸繪 使諸行人皆見佛塔 思慕如來法王道化 生獲福利 死得上天”

78) 不載譯人附東晉錄, 『般泥洹經』卷下(『大正藏』1, 189上), “(葬法云何 答如教說) 轉輪王法 佛當復勝”

의 (장례법은) 다시금 저보다도 수승하다”⁷⁹⁾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또한 봉다의 장례법에 대한 언급 속에는 전륜성왕을 ‘法王’과 연결시키고, 봉다는 ‘如來法王’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봉다가 단지 최상의 의미로만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바라고 하겠다. 즉, 이 경은 분명 봉다와 전륜성왕의 양자를 일치시키는 ‘法王’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륜성왕과 봉다가 ‘法王’이라는 공통분모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난이 봉다의 열반 이후에 여러 후사를 고려하여 『長阿含經』에서는 “이 보잘 것 없는 작은 성 거칠고 허물어진 땅에서 滅度하시지 마소서. 왜 그러냐하면 더욱 큰 나라들인 침파대국·비사리국·왕사성·밧지(婆祇)국·사위국·가비라(迦維羅衛)국·바라나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백성들이 많고 불법을 즐겨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멀도 하신 뒤에는 반드시 그 사리를 잘 공경하고 공양할 것입니다”⁸⁰⁾라고 하고, 『中阿含經』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세존께서는 … 어찌하여 지금 이 작은 토성에서 (열반하시려 하나이까.) 모든 성 중에 이곳은 최하위일 뿐입니다”⁸¹⁾라고 말씀드리자 봉다는 이곳이 과거에 大善見이라는 전륜성왕이 다스리던 拘舍婆提라는 영광스런 수도였다고 쿠시나가라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금 봉다는 이곳에서 6번이나 전륜성왕이 되어 뼈를 묻은 인연 있는 땅이라고 강조하게 된다.⁸²⁾ 봉다는 아난이 제기한 열악한 땅의 문제를 전륜성왕과 연결시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 세의 이야기 속에서 전륜성왕조차도 결국은 덫없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大善見王은 마침내 출가하여 수도하게 되고, 大善見王의 죽음과 더불어 輪寶를 위시한 7寶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는 분명 전륜성왕도 덫없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봉다의 완전성을 부각시키는 바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大善見王이 봉다의 전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봉다는 결국 전륜성왕의 무상함을 딛고서, 마침내 ‘法王’ 중의 최상인 ‘如來法王’의 궁극적인 경지를 획득한 것이 된다.⁸³⁾ 그리고 이러한 ‘如來法王’의 의미는 ‘봉다+출세간의 전륜성왕’의 개념 정리를 통해서 만이 보다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봉다는 전륜성왕의 가계에 출세하여

79) 白法祖譯, 『佛般泥洹經』卷下 (『大正藏』1, 169中), “(佛告阿難) 葬法如飛行皇帝殯葬之法 佛復蹻彼”

80)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3 「遊行經第二中」 (『大正藏』1, 21中), “爾時 阿難卽從座起 偏袒右肩 長跪叉手而白佛言 莫於此鄙陋小城荒毀之土取滅度也 所以者何 更有大國瞻婆大國毗舍離國·王舍城婆祇國舍衛國迦維羅衛國·波羅奈國 其土人民衆多 信樂佛法 佛滅度已 必能恭敬供養舍利”

81)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14 「中阿含王相應品大善見王經第四(第二小土城誦)」 (『大正藏』1, 515中), “世尊 (更有餘大城 一名瞻波 二名舍衛 三名轉舍離 四名王舍城 五名波羅奈 六名加維羅衛 世尊不於彼般涅槃) 何故正在此小土城 諸城之中此最爲下”

82)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3-4 「遊行經第二中-遊行經第二後」 (『大正藏』1, 21中-24中).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14 「中阿含王相應品大善見王經第四(第二小土城誦)」 (『大正藏』1, 515中-518下).

83) 佛陀耶舍·竺佛念譯, 『長阿含經』4 「遊行經第二後」 (『大正藏』1, 24中), “阿難 我自憶念 曾於此處六返 作轉輪聖王 終措骨於此 今我成無上正覺 復捨性命 措身於此 自今已後 生死永絕 無有方土 措吾身處 此最後邊 更不受有”

瞿曇僧伽提婆譯, 『中阿含經』14 「中阿含王相應品大善見王經第四(第二小土城誦)」 (『大正藏』1, 518中), “我於其中間七反捨身 於中六反爲轉輪王 今第七如來無所著等正覺 阿難 我不復見世中天及魔梵沙門梵志 從天至人 更復捨身者 是處不然 阿難 我今最後生最後有最後身最後形得最後我 我說是苦邊”

결국 여래법왕으로써 영원한 涅槃城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봉다가 『增壹阿含經』의 「高幢品」에서 전륜성왕의 가계를 이어 달라는 석가족들에게 “나는 지금 바로 王의 몸이니, 이름하여 ‘法王’이다. 왜 그런가를 나는 지금 너희에게 생각해 하리라. 어떠한가 여러 석가족들이여, 전륜성왕은 7寶를 두루 갖추고 용맹스런 1천 아들을 둔다고 한다. 나는 지금 三千大千刹土 중에서 자장 존귀하고 가장 높아 따를 이가 없으며, 7覺意寶(7覺支)를 성취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千의 聲聞 아들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⁸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서 보다 분명해 진다고 하겠다.

V. 결론

태자의 탄생에 따른 점사의 예언에는 봉다와 전륜성왕이라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점사들은 이 중에서 전륜성왕이 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점사의 예언은 또한 정반왕의 바람과도 일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시타 선인은 이들과는 반대로 봉다의 가능성에만 확신을 가지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시타의 예언으로 인하여 태자는 정반왕에 의해서 의도된 바의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 즉, 봉다의 태자생활과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 없을 태자의 출가시기에 대한 변증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전이 제시하는 점사와 아시타 선인은 태자의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각기 하나씩만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불전의 기록자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양자 중의 어느 하나를 포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로 인하여 성도 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설법과 열반에 전륜성왕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봉다와 전륜성왕은 출가와 재가에 있어서 각기 최상의 가치인 동시에 또한 불교적인 이상인격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습합을 통한 보다 완전성을 획득하려고 시도하고, 이로써 봉다를 장엄하려고 하는 것은 불전에 관심이 있는 불전의 기록자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봉다는 일반의 수행자들과는 격이 다른 수행과 교화의 양방향에서 아울러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인식은 분명 충분한 내적 필연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아함경』에서와 같은 如來法王이라는 ‘봉다+출세간의 전륜성왕’의 개념적 도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전의 관점이 과연 봉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문제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인식이 아함을 위시로 하는 불전들을 一以貫之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최소한 아함이나 불전들이 기술되던 당시의 봉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84)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14 「高幢品第二十四之一」(『大正藏』2, 617上), “我今正是王身 名曰法王 所以然者 我今問汝 云何 諸釋 言轉輪聖王七寶具足 千子勇猛 我今於三千大千刹土中 最尊最上 無能及者 成就七覺意寶 無數千聲聞之子以爲營從”

주제어 : 예언, 32상, 占師, 아시타, 天祠, 전륜성왕, 輪寶, 범륜, 法輪, 법왕, 장례법

English Summary

A study on the Prediction about the Birth of gautama Buddha

Youm Jung-sup

Every Buddhist text tells the story that the Buddha as the young royal prince already had two possibilities of being positioned at the top of the two worlds, both the supramundane and the mundane, as the Wheel-turning Novel King and the Buddha respectively. The prince finally comes to choose the supramundane based upon his symbolic experiences of witnessing the agricultural labor and four major pains of life in all the four directions. He eventually achieves the accurate learning of the human life by doing so.

What these stories ultimately tell the believers is that, the Buddha eventually chose the holy world of nirvana, although he could have become a Wheel-turning Novel King, or an all-powerful ruler. In other words, when standing on the crossroad of the Buddha and the ruler, the royal prince decided to take the path of the Buddha, completely abandoning the path to the great leadership of the secular world.

However, the actual texts of the Buddhist scriptures convey messages different from this segment understanding of the Buddha's life. The scriptures are worth attention, since they relate the two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Buddha's life -the initial preaching at the Greenery and the nirvana at Kusinagara- to the authority of the Wheel-turning Novel King or the great ruler. All the scriptures term the edification of five monks after the preaching at the Greenery as 'the Delivery of Basic Buddhist Rules'. No one would raise a question against the fact that the 'rules(cakra)' here are the symbol of the Wheel-turning Novel King . Also, at the time of nirvana of Kusinagara, when questioned by Anan on how to conduct the funeral ritual, the Buddha answers that the funeral be conducted in the practices for a the Wheel-turning Novel King.

The fact that the Buddhist scriptures mention the laws of the Wheel-turning Novel King in the most important times of the Buddha's life, along with the birth of Lambini and the wisdom attainment of Buddhagaya, clearly indicates the fact that the value of a Wheel-turning Novel King was not selectively annulled when the prince left the mundane.

The Buddha and the Wheel-turning Novel King are the top ideals of both the holy and the secular worlds, and represent the ideal personality every Buddhist should

pursue. Thus, it would be natural for the authors of the Buddhist scriptures to attempt at attaining perfection by combining the two different aspects of Buddhists, thereby elevating the status of the Buddha in the minds of his follow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Buddha is positioned at the peak of ascetic exercises and edification that are on a level different from the general austerity exercisers, such interpretation of the Buddha's dual aspects is viewed to contain inherent necessity as well. Therefore, the idea of 'the King of the Dharma(Buddha Tathagata)' explained in *Jang-a Ham-gyeong* that combines the ideas of the Buddha and the Wheel-turning Novel King of the supramundane is the most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Buddha's life.